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모든 억눌렸던 세력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는 소위 포스트 시대에 적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교회의 현재 위상을 확인하고,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자극과 세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을 지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영국의 여류 작가인 지넷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의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대한 다양한 메타분석을 통해,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의 특징과 그 속에 묘사된 오늘날 교회의 좌표를 확인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성애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이 과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선 이 작품이 1985년 출판 직후, 그 문학적성과 인기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 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소설은 각 장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첫 여덟 권의 제목을 붙이고 있으며, 각 부의 내용은 해당 구약성경의 내용을 윈터슨 자신의 삶의 궤적에 맞추어 패러디하면서, 작은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폐쇄적인 기독교 사회의 억압적인 한 면모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간접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은 성경을 패러디한 표면적인 구조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독백적 내러티브의 중간 중간에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나 마법사에 관한 동화 등을 삽입하여 작품의 함축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소위 ‘포스트모던 소설’의 서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전 소설, 성장 소설, 여성 소설, 레즈비언

소설, 그리고 포스트모던 소설 등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은 민감한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작가 윈터슨은 ‘21세기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별명과 더불어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단일한 중심’이나 ‘거대담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진지한 논리들을 가버운 유흥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소위 ‘포스트모던’의 시대의 한 중심에서, 같은 정신과 기법으로 쓰여진 소설 작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음 전파의 베이스캠프로서 포스트 시대를 아우르며 선도할 교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포스트 시대와 기독교

1. 포스트 시대의 문학, 문학과

작가 지넷 윈터슨은 1959년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태어났으며, 애크링턴(Accrington) 출신의 오순절 복음주의 교회(the Pentecostal Evangelical church)의 성도였던 콘스탄스(Constance)와 존 윈터슨(John Winterson)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녀를 선교사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부모의 계획을 따라 철저한 기독교적 교육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15세가 되던 해에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파문을 겪게 된다.

그 사건 이후 집을 떠나 아이스크림을 팔고 장례식장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하면서, 영국의 대입시험인 A 레벨 시험(A Levels)을 본 후, 옥스퍼드 대학 내 세인트 캐서린 대학(St. Catherine's College in the University of Oxford)에 진학했고, 1981년 영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졸업 후, 그녀는 런던으로 이주하여 라운드하우스 극장(the Roundhouse theatre)과 예술복합단지(Arts complex)에서 일 자리를 찾았고, 1985년에 판도라 프레스(Pandora Press)에서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를 출판했다. 현재 이 소설은 “윈터슨의 소설 중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the most popular and most written-on of Winterson's novels) 작품”(Makinen 1)으로 인정되고 있다.

윈터슨은 엘리너 와크텔(Elener Wachtel)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언어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재능과 감각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피력한다.

저는 성경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전 감히 누구보다도, 대부분의 현대인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말하는 방식, 우화와 이야기, 소설이 모두 담겨 있고, 무척 강렬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다가가요. 저에게 언어는 자유입니다.(250-251)

사실 성장기 어린 시절에 그녀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과 토머스 말로리 경(Sir Thomas Malory)의 『아서왕의 죽음』 (*Le Morte d'Arthur*),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의 『제인 에어』 (*Jane Eyre*), 그리고 성경 해설집 등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권에 불과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성경 외에 그녀의 글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아서왕의 죽음』 이었다고 한다.(배만호 87)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작품들인 『태양 전쟁』 (*The Battle of the Sun*)(2009), 『카프리 왕』 (*The King of Capri*) (2003), 그리고 『탱글렉』 (*Tanglewreck*)(2006) 등과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쓰기도 했던 윈터슨은 성경 뿐 아니라 물리학과 의학, 더 나아가서 컴퓨터 기술과 가상 공간과 관련된 내용까지 작품 속에서 상호텍스트적 실험에 사용해 오면서, 자신의 말대로 “소설의 유형과 전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실험하는 작가”(와크텔 254)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가톨릭의 사제직을 거부하고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a priest of eternal imagination)”(Joyce 221)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던 아일랜드 출신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주인공인 스티븐 디달러스(Stephen Dedalus)처럼 윈터슨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거부하고 종교를 초월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끌어들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은 물론 아주 유용한 훈련이었습니다. 설득의 기술, 구식 수사학이죠. 저는 언어를, 말과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도사의 정체죠. 성공한 전도사란 청중에게 그들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들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예술가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 자체를 위해서, 예술 자체로 그렇게 합니다.(와크텔 250)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양육과정을 거쳤던 어린 시절의 과도하다 싶은 정도의 종교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어린 시절의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에 대한 반발과 모든 제약과 구분을 거부하며 초월하는 그녀의 자유로운 성격으로 말미암아 윈터슨의 매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게 되었고, 20세기 후반의 영국 문학을 다루는 비평서들은 변함없이 그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윈터슨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 중에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레즈비언 작가로서의 특징과 포스트모던 작가로서의 그것이다. 윈터슨 자신은 1991년에 쓴 이 작품의 저작 과정과 그 의미와 특징을 기록한 서문(“Introduction”)에서 이 소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이 작품은 직선형 구조가 아닌 “나선형 서술 구조(a spiral narrative)”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 위장한 복잡한 서술 구조를 제공하며,” 둘째로 가족과 교회 생활의 신성함의 이면을 드러낸 “위험적인 소설”이며, 셋째로는 “위안이 되는 소설”인데,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자전적 소설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¹⁾

레즈비언 텍스트로서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적 반응 역시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메르자 매किन(Merja Makinen)은 『지넷 윈터슨의 소설들』(*The Novels of Jeanette Winterson*)이라는 저서에서 윈터슨의 텍스트에 대한 반응의 범위는 우선 그녀의 작품들이 성 정체성의 문제를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해체하고 젠더 수행의 유동성을 가시화했다거나, 이성애자 세계 내에서 레즈비언 여성들에게 가해진 억압과 피해를 밝혀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주장, 또는 레즈비언리즘의 보편화 또는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2-3)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문화의 정통성과 그 역사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관련된 사조이며,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일단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이나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원리들에 대한 의심 등을 포스트모던의 조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xxiv) 또한 철학적 상대주의와 유동적인 정체성 등의 개념들을 포함하는 이 사조는 소위 젠더의 본질을 구성된 것으로 보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도 일맥상 통한다.(Low 27)

윈터슨의 소설의 근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 실험정신, 개인의 내면 의식과 그 흐름에 대한 천착, 그리고 소위 성이나 젠더와 같은 ‘생물학적 욕망’과 ‘사회적 정체성’과

1) Jeanette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ondon: Vintage, 1990), pp. xi-xv 참조.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서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페이지만 기록한다. 번역문은 지넷 윈터슨/ 김은정 옮김, 『오렌지만이 과일인 아니다』 (서울: 민음사 2009)를 참조함.

관련된 주제 등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모더니즘의 실험을 다시 시작”(와크텔 255)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자유를 강조하는 레즈비언 작가로 볼 수도 있고, 또 “역사와 문화와 성별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Pearce148)을 추구한 인본주의 작가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그녀는 사실상 자신의 내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구분과 구별과 차별을 초월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예술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포스트 시대의 기독교와 기독교인

진 에드워드 베이스 2세(Jean Edward Veith, Jr.)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와 문화예술가들이 기독교적 가정(Christian assumption)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과 전공이나 관련 영역이 충돌하게 될 때 “세속주의 학계의 권력과 위세에 눌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나, “현대의 유행과 가치관에 따라” 기독교의 교리를 재해석하여 타협함으로써 “신학적 자유주의”의 길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Veith 11-12) 따라서 그는 크리스천들도 “지성을 사용하고 계발(use and develop their minds)”(Veith 11)하여 현재의 풍조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것을 강조한다.(Veith 12)

데이빗 웰즈(David Wells) 역시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과 더불어 오늘날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로 포스트모더니즘 풍조가 궁극적으로는 인간 경험의 공허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구원론(soteriology)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Wells 42)

그런가 하면 보디 보챔 2세(Voddie Baucham Jr.)는 “우리 문화에서 경쟁하는 두 가지 주요한 세계관”을 각각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과 “세속적 휴머니즘의 포스트모던 버전(a postmodern version of secular humanism)”으로 명명하고, 그 두 세계의 신관, 인간관, 진리관, 지식관, 그리고 윤리관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에 요약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보챔은 인생의 네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들, 즉 1) 나는 누구인가? 2)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3) 세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4)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그 질문들이 위의 두 집단의 삶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한 후, 골로새서 1장 12절-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탁월성(The Supremacy of Christ)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교한다. 이번에는 포스트모던 휴머니즘의 답을 먼저 정리한다.

표 1. 기독교 유신론과 포스트모던 인본주의의 근본적 인생관의 차이(Vaucham Jr. 54-66)

질문들	포스트모던 휴머니즘(Postmodern Secular Humanism) (Vaucham 54-57)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 (Vaucham 57-66)
나는 누구인가?	우연의 결과, 실수, 미화된 유인원, 임의의 진화 과정의 결과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골 1:15-16)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심 (시 8:5)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만드심(시 139:13) -고유와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소비하고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왔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향유해야 한다. *록펠러가 받은 질문: “얼마면 되겠어?” 록펠러의 대답: “조금만 더...” ** 결과: 물질주의 우주에 쾌락과 소비를 결합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 ‘너’를 착취한다. -나치의 인종 말살 -현대인의 낙태와 유산 등	골 1:16b-18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이유는 소비와 즐거움을 훨씬 능가한다.
세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관리와 통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골 1:19-21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를 원한다.
잘못된 것을 수정할 방법은 무엇인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거나, 더 강력한 관리와 통제를 해야 한다. *결과: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른 인간을 데려다가 교육 시키면 파괴의 능력이 더 정교해질 뿐이다. 또한 통치권자들의 부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골 1:22 그러나.../ 23 만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만일 우리가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 순위와 주권과 탁월성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다른 이로는 구원이 없음(행 4:12)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구원 완성(벧전 3:18)

이상과 같은 흥미로운 비교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보웬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전자[포스트모던 세속적 인본주의]와 함께라면, 그대는 공허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남겨지고,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대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기독교 유신론]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소중하고, 목적이 있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진실로 포스트모던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다.(67)

요컨대,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책임 하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위 ‘실존주의적 세계관’은 이미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러한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학과 문화가 구성해 가는 세계관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땅 위에 견고히 그 터를 닦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스트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학자들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 2:8)고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기반한 더 치밀하고 더 구체적인 연구들을 통해 각종 문화와 문학 및 예술의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 소설 속의 포스트 시대와 기독교

1985년 처녀 출간 이후 많은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아낌없는 찬사 속에 “비평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Low 86) 윈터슨의 첫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는 현재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편성”(Makinen 5) 될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애초 이 작품은 1980년대 중반에 정치적 우파들이 1960년대의 좌익 급진파와 성적 혁명에 대하여 현대 사회의 병증, 즉 가족 가치의 파괴와 전통적 도덕 규범의 파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시대에 쓰여져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일련의 관련된 담론에 대한 인습타파적 도전을 감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Bently 109)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은 소위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질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인 윈터슨이 소설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패러디를 통한 조롱과 전복을 시도한 대상은 서구의 주류 종교인 기독교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정제도, 그리고 이성애 중심의 젠더 구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패러디적 등가물이 지넷의 성장의 단계들과 성경적 설명 사이에 세워진다 (Omega 21). 즉 이 소설을 구성하는 여덟 개의 챕터들은 구약성경의 첫 여섯 권인 「창세기」 (Genesis), 「출애굽기」 (Exodus), 「레위기」 (Leviticus), 「민수기」 (Numbers), 「신명기」 (Deuteronomy), 「여호수아」 (Joshua), 「사사기」 (Judges), 그리고 「룻기」 (Ruth)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상 만물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의 여정을 다룬 성경 각 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섭리 대신 주인공 지넷의 삶의 여정에 맞추어

기록된다.

예컨대, 「창세기」는 지넷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그녀를 입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10), 윈터슨의 「창세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며, “철저하게 구약성서적”(4)이었던 그 어머니는 스스로 신약성경의 ‘동방 박사’가 되어 자신만의 동정녀 출산으로 마리아를 패러디하고 있다. 「창세기」의 말미에서 “사육장(Breeding Ground)”(17)이라고 불리는 학교의 취학통지서를 받게 된 어머니는 지넷에게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네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가야 하니까”(21)라고 알려준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 형성을 위해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 작품에서 지넷이 집이라는 환경을 떠나 학교로 가는 여정 속에서 교회와 병원 등 여러 사회적 환경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속의 내용들을 왜곡시키고 전복하고 있다. 예컨대 「신명기」를 읽은 소감을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할례의식을 오해하고 있는 듯한 어린 지넷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신명기」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 복음서에는 혐오스러운 것과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사생아나 고환이 망가진 사람에 대해 읽게 될 때마다 어머니는 페이지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주님께 말기자꾸나”

그러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면 나는 그 부분을 몰래 훑쳐보곤 했다. 내게 고환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고환은 몸 바깥에 붙었을 뿐 창자와 닮았는데 성서 속의 남자들은 항상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 없었다. 끔찍해라. (41)

그런가 하면,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의 어둡고 추운 밤길을 밝혀주던 불기둥과 대낮의 무더위로부터 지켜주던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름 기둥은 안개다. 혼란케 하고 견디기 어려운 안개. 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47)라고 표현함으로써 성경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도 하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다룬 「레위기」는 “흠이 없는”(58) 완전을 설파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동화를 삽입하여, 자신만의 균형을 잡으려 시도하고 있고,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의 와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인구 조사 뿐 아니라,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광야의 불뱀과 뱀 사건 등을 통해 유대 민족의 불순종과 불평, 징벌과 회개,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민수기」에서는 지넷의 이야기에서는 결혼이 불가능한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는 꿈 이야기로

변용된다.

더 나아가 「민수기」에는 주인공 지넷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반응이 구체화 된다. 찢어진 우비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사준 분홍색 우비(Mackintosh)를 매우 못마땅해 하는데, 이것은 크기와 색깔이 맞지 않는 옷을 입힘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강제로 재단하려는 시도”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성(femininity)”과 “소녀다움(girliness)”을 의미하는 분홍빛에 대한 지넷의 거부 반응일 수 있다.(배만호 90) 타고난 성별에 대한 주인공 지넷의 거부감은 시장의 생선 가게에서 만난 “옆집 고양이처럼 사랑스러운 회색”(78) 눈동자를 가진 멜라니(Melanie)에 대한 연정과 그녀와의 성적 체험으로 연결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선교사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있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 접촉이 성경공부와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넷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민수기」 장은 종교적 규율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위반에서 오는 두려움이 기성 사회의 고정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반동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녀의 의식의 흐름과 관련된 서술로 마무리 된다. 이처럼 엄청난 국면의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민수기」는 모세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가 “역사 혹은 중심을 해체하려는 작가의 의도”(배만호 90)가 다분히 응결된 짧지만 강력하고 자유로운 윈스턴 자신의 메시지로 가득찬 또 다른 「신명기」로 치환된다.

결국 다섯 번째 장인 「신명기」는 “한결같은 기적을 믿느니 내가 직접 만든 겨자 소스를 샌드위치에 뿌려 먹을 것”(93)이라고 스스로 결심하며, 독자들에게도 “당신의 치아를 보존하고 싶다면,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도록”(93) 권고하는 작가의 목소리로 마무리된다. 특히 이 장의 제목에는 “율법서의 마지막 권(the last book of the law)”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이후 주인공 지넷의 삶의 양상이 좀 더 개인적이고 탈규범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세오경(The Pentateuch)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따라야 할 율법 제정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위터슨 소설의 첫 다섯 장은 지넷이 마침내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주류 문화권과 지극히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가나안 정착기를 다룬 「여호수아」는 지넷의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동성에 성향이 밝혀진 뒤에 교회의 담임 목사와 어머니로부터 ‘구마의식’(exorcism) 등을 비롯한 엄청난 갈등을 겪은 후에 결국 교회와 가정을 떠나는 이야기로 각색된다. 이 장에서 지넷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던 어머니라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담장은 보호하고 동시에 제한한다.

무너지는 것도 담장의 본질인 것이다.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트럼펫을 불줄 알게 된 결과다”(110)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유대인들의 승리를 이성애 중심의 억압적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자신이 독립을 쟁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로 끝나는 「사사기/판관기」의 이야기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와 어머니에 대한 지넷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결국 둘 사이의 화해가 무위로 돌아가고 지넷은 교회와 가정을 떠난다. 결국 회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한 지넷에게 어머니는 “네가 나가야겠다. 난 내 집안에 마귀를 들일 수 없어.”(133)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을 떠나는 지넷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아침이었다.”(134)라고 소회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로렐 볼린저(Laurel Bolinger)는 윈터슨이 지넷의 이야기에 성서 텍스트를 혼합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과 성서 텍스트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과 허구 사이의 구별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65) 그 결과로 그녀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위상을 끌어내려 아더왕의 이야기나 동화 등과 같은 세속의 허구적 이야기들과 동일시 함으로써,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그녀는 자신의 소설의 마지막을 「룻기」로 장식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여자이자 가난한 과부, 그리고 주류 세력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이라는 세 겹의 주변화”(Onega 21-22)를 신의로 견디며 시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하다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룻의 이야기가 천에 고아 입양아에 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 신분의 소녀 지넷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저녁에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로 변형된다.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지넷은 학교를 졸업하고 정신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아 어머니에게로 돌아온다. 엄청난 눈과 추위 속으로 돌아온 지넷은 마치 성경 속의 ‘돌아온 탕자’(눅 15:11-32)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녀는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데다 내 좌석 위의 짐 싯는 선반은 망가져 있”고 게다가 지나가던 검표원은 “통로에 짐 놓지”말라고 경고하고 있다.(157)

이 장면은 교회에서의 커밍아웃 이후, 큰 소동을 겪은 뒤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162)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공 지넷의 지극히 정상적인 홈커밍(homecoming)의 순간에 대한 묘사이지만, 집과 어머니를 만나기

직전 그녀의 모습은 공교롭게도 장갑이 없어 추위 속에 짐을 들 수도 없고, 짐칸은 부서졌는데, 통로에 짐을 놓을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즉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정확한 전환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인 윈터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남성성, 남성에게만 세력을 허용하고,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하며, 교리에 어긋나는 그 어떤 의견이나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철저히 등을 돌리는 기독교, 남성 중심 문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 등에 대하여, 스스로 그 모든 상황과 정반대의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온 작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다양한 문학적 장치들에 엮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고, 전복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장에서 지넷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고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로 부터 “사탄의 주문에 걸렸”(102)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이후 끝까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수했던 지넷과는 달리 그녀의 연인이었던 멜라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곧바로 회개를 하고, 그녀와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며,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건 이후 그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레즈비언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주스베리 양, 케이트, 아이스크림 가게 여인들 등), 심지어 지넷의 어머니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하여 닉 벤틀리(Nick Bentley)는 지넷의 어머니가 이 여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억압해왔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10) 또한 지넷의 커밍아웃으로 교회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을 때, 혼자 남은 그녀에게 다가온 주스베리 양이 던진 의미심장한 말 속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엄마는 세속적인 여자야. 너는 절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겠지만, 네 엄마는 감정, 특히 여자들의 감정을 잘 알아.”(104) 윈터슨이 그녀의 작품을 “위협적인 소설”(xiii)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브리엘 그리핀(Gabrielle Griffin)은 작품 속 주인공인 지넷이 레즈비언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 중 하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남성이 전혀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넷이 레즈비언의 성향으로 발전했다는 “사회구성주의적 견해(social constructionist views)”와 지넷 자신이 결코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본질주의적 견해(essentialist views)가 그것이다.(96-7) 덧붙여서 그 커뮤니티는 양성 간의 균형 잡힌 사랑에 대하여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은”(71) 왜곡된 교육 환경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인공 지넷의 성장 환경은 주변을 통한

그녀의 성 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지넷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규범을 거부해 왔다. 예컨대, 자신을 귀여운 “아가(poppet)”⁽⁷⁰⁾라고 부르던 우체국 아저씨가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하트 모양 사탕을”⁽⁷⁰⁾이라고 인사하며 사탕을 주자 그녀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요컨대 그녀의 환경 속에 이미 부재하고 있거나 부정적으로 만연해 있는 남성의 이미지와 이 문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성애 사회에서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주인공 지넷의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사회 구성적’ 혹은 ‘본질적(선천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여기까지가 현대의 기독교 또는 교회가 만나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세계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보웬의 주장대로 “동성애 결혼이 일어나고 있고, 부분 출산 낙태가 흔해졌으며, 정치 후보들은 그들의 조력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의 종교적 소속감의 강도를 정기적으로 낮추고 있다.”⁽⁵¹⁾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내는 성도는 ‘근본주의자’나 ‘광신도’로 매도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교의 치밀함과 문체의 유연함과 대담함, 그리고 그 주제의 당돌함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윈터슨의 소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같은 소설이나 영화 등과 같은 각종 문학과 문화 및 예술의 작품들은 다양한 기법과 장치를 이용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전복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질서와 권위 속에서 억압받고 무시되던 세력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아이는 어른에게, 약자는 강자에게, 빈자는 부자에게, 식민지는 제국에게,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양성애자들에게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그 모든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취해 온 억압의 태도들이 너무나 길고 잔인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강자들은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심지어 정반대의 역차별의 결과가 예측된다 할찌라도 그러한 요구는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교회가 직면해야 할 딜레마이다.

IV. 나가는 말: 결론을 대신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열 블록, 가로등 스무개”⁽¹⁵⁸⁾를 지나 집을 찾아간 지넷은 ‘변화’와 ‘불변’을 동시에 경험한다. 우선 집의 위치와 어머니의 존재는 변함이 없었다. 사람은 배신하고 조직은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기다림과 그녀의 봉사과 선교 활동은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건재하였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유연함이었다.

집에 돌아온 딸의 눈에 띈 어머니의 모습은 피아노를 얹고 전자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다. 또한 사건 초기에 딸의 성적 정체성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가급적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결국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167)라고 말하면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성탄절 기간에 보여준 이와 같은 어머니의 변화는 엄격한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훈육과 처벌을 역설하는 ‘구약의 논리’에서 사랑과 관용을 더 중시하는 ‘신약의 논리’로의 전이로 해석되기도 한다.(Bently 113)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충성해 온 어머니는 ‘광신자’이거나 ‘원리주의자’ 또는 ‘근본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신뢰나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믿음의 결실은 어찌 보면 바로 지넷의 어머니와 같은 열정적인 성도들에 의해서 거두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지넷이 또 다시 탈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을 때, “큰 바람을 일으키며 성큼 성큼 들어와”(171) “맨체스터에게 전하는 성령의 빛”(171) 방송을 시작한다. 그 사이에 주인공 지넷은 비록 “남자를 위해서는” “전부를 주는 사랑”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 그림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림다”(165)라고 독백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이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 비평과 분석은 특정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의 성적 지향을 전투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진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우수한 문학과 개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력과 교회 성도들의 집요한 관심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하지만 결국 “친구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지넷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윈터슨이 추구했던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체성을 뒤흔들며, 결국 신앙마저 버리게 만드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는”(138) 어머니의 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가 포스트모던적 비평인 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말미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변증법의 형식을 빌어 발생하는 각종 신종 사조들과 심지어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창궐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에 의해서까지 그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가 오늘날 이 모든 급격하고도 치명적인 사회적 변화를 대하는 자세는, 상대방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무조건적인 적대시나 반대 보다는, 그러한 포스트주의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철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들을 아우르며 초월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지적, 영적 역량을 함양하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참을 것을 촉구하셨던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그 탁월성에 그 바탕을 둔 유연함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 1:8)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ntly, Nick (2008). *Contemporary British Fiction*. Edinburgh UP, pp 108-117.
- Griffin, Gabrielle (1998). ‘Acts of Defiance: Celebrating Lesbians’, in *It’s My Party*, ed. Gina Wisker, London: Pluto, p. 96-7.
- Joyce, James (1968).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Anderson, Chester G., New York: The Viking Press.
- Low, Gail (2015), “Publishing and Prizes,” in *The History of British Women’s Writing, 1970–Present*. Mary Eagleton, Emma Parker, eds. 2015. pp. 27-8
- Liotard, Jean-Françoi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umi. Manchester UP.
- Onega, Susan (2006). *Jeanette Winterson*. Manchester: Manchester UP.
- Pearce, Lynne (1994), ‘“Written on Tablets of Stone”? Jeanette Winterson, Roland Barthes and the Discourse of Romantic Love’, in *Volcanoes and Pearl Divers: Essays in Lesbian Feminist Studies*, edited by Susan Raitt (1994). London: Onlywomen Press.
- Piper, John and Justin Taylor, eds (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Crossway Books,
- Pykett, Lyn (1988), ‘A New Way with Words? Jeanette Winterson’s Post-Modernism’, in *I’m Telling You Stories: Jeanette Winterson and the Politics of Reading*, Ed. Helena Grice and Tim Woods, Amsterdam: Rodopi, (1998), pp. 53 - 60.
- Wachtel, Elener (1996) *More Writers & Company*. Vintage Canada.
- 허진 옮김 (2017). 『작가라는 사람』 1. 서울:엑스플렉스. 「지넷 윈터슨」, pp. 246-268
- 배만호 (2006).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서사기법.” 『새한영어영문학』. 53(4), 85-105.
- 성서원(2017). 『관주 메모성경』. 서울: 성서원.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포스트 시대 교회의 역할: -지넷 윈스턴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발표자	김철수
		논찬자 (소속)	권혁관 (그말씀연구소 소장)

김철수는 지넷 윈스턴의 자신의 삶을 투영한 자전적 소설로 동성애에 대한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면서 당시 사회상에 대한 저항을 담은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라는 책을 통해 현대 사회의 거대담론을 허무는 포스트모던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그에 응하는 교회의 역할을 논했다. 그의 글의 장점은 포스트 시대의 문학 특징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캄의 4가지 질문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교회의 역할을 제시한 점이다. 그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역할은 첫째,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나타내자.” 둘째, “무조건 적대시하지 말고 포용하자”이다. 논평자는 그의 글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을 인정하고 또한 감사를 전한다.

그의 학문적 성취가 이 시대 잘못된 사상과 조류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글의 결론이 ‘지극히 원론적이면서 포괄적이지 않냐’하는 점이다. 굳이 지넷 윈스턴의 소설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논평자는 지넷 윈스턴의 소설을 분석한 김철수의 글에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넷은 실화에 허구를 더한 소설기법으로 진짜에 가짜를 더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가짜를 만들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보편적 가치물로 창조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소설 속에서 지넷의 엄마는 지넷에게 말한다.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지넷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포스트모던적 사고다. 그러나 성경적 답변은 “너는 그래도 내 딸이니까”가 맞는 답이다. 결국 지넷은 ‘힘없고 가엽게 된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했으니, 세상도 자신을 인정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미혹하는 것과 같다.

둘째, 복음 전파를 말에서 선한 행실을 통한 삶의 기반으로 적극 수정해야 한다. 소설 속 사회가 강압적이었듯,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지극히 경도되어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각종 말이 모두 허용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말을 이길 있는 힘은 삶이다. 교회가 더 더러운데 세상을 청소하겠다고 하니,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다.

셋째,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지넷은 자기 식대로 성경을 소설 속에서 해석하고 패러디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결국 신의 음성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자신이 신이 된 것이다. 지넷의 모습은 교회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기에 씁쓸하기만 하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